

지역 아카이브 관련 해외 연구 동향 분석*

A Study on Research Trends in Local Archives

최 상 희 (Sanghee Choi)**

초 록

이 연구는 지역 아카이브를 주제로 한 학술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SCOPUS에서 수집한 지역 아카이브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현황과 주제를 분석한 것이다. 연도별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 아카이브 연구는 1950~90년대까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에 49편으로 증가하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전체 논문의 약 88%가 2010년 이후 발표되어 최근 2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분석은 학술지 단위와 논문 단위로 수행되었으며, 학술지 단위 분석은 SCOPUS의 학술지 주제분류를 기반으로 주제 영역을 분석하여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주요 영역을 파악하였다. 학술논문 단위분석에서는 논문 제목 키워드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제 간 연관성과 핵심 연구영역을 도출하였다. 학술논문 제목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아카이브 연구 주제 분석에서는 기록 중심 연구와 문화유산·지역성 연구가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아카이브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research trends on local archives using articles retrieved from SCOPUS. The analysis shows that scholarly interest remained minimal until the 1990s but increased notably in the 2000s, with 88% of all publications appearing after 2010, indicating rapid growth over the past two decades. Journal-level analysis using SCOPUS subject classifications identified the major disciplinary areas contributing to local archive research, while article-level keyword network analysis revealed core themes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Overall, local archive studies have evolved through a convergence of record-centered research with cultural heritage and regional studies, alongside a growing body of work related to digital archives.

키워드: 지역 아카이브, 연구동향, 네트워크 분석, 계량서지적 분석

Local Archives, Regional Archives, Research Trend, Network Analysis, Bibliometric Analysis

* 이 논문은 2023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hchoi@cu.ac.kr)

논문접수일자 : 2025년 11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25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12월 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4): 161-181, 202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5.36.4.161>

※ Copyright © 2025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아카이브와 관련된 연구분야는 전자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문화유산 보존, 정보공개, 데이터 거버넌스 등 기록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확장·다양화되면서 연구 영역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아카이브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연구에서는 아카이브를 정적 기록저장소로 해석하지 않고 “가치 전환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면서 아카이브는 유형·무형·지역 커뮤니티 지식까지 통합하는 구조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Qi et al., 2025). 따라서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속하는 정부부터, 기관, 연구자들이 참여해야 하며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생태계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록 분야의 연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왔는지, 어떤 주제가 중심이 되고 새로운 연구영역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기록학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은 기록 관련 영역의 연구현황과 지적 구조를 파악하고, 기존 연구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며, 학제적 성격을 식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록 분야는 전통적으로 기록학, 문헌정보학, 역사학, 정보기술 분야 등 다양한 학문과 융합하여 발전해왔기 때문에,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학문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기록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사례를 살펴보면 학술지 중심이나 주제 영역이 중심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으며 주제 영역별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사례를 살펴보면 웹 아카이빙(김희

정, 2011)이나 디지털 아카이빙(이소연, 2013), 디지털 큐레이션(김관준, 2015) 등 디지털 아카이브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한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도 정보공개(최정민, 김유승, 2013), 정보조직(이은주, 노지현, 2020), 구술사(이재영, 정연경, 2018)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동향을 파악한 사례가 있었으나 대부분 국내 연구 동향 분석에 치중되어 있고 해외 연구동향을 분석한 사례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동향 분석 사례에서도 특정 주제 영역에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최근 민간 및 지자체 주도로 구축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지역 아카이브를 주제로 해외 연구동향을 조사하여 지역 아카이브와 연관된 연구 주제와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 아카이브는 해당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민들의 경험, 삶의 맥락과 그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공간과 장소의 변화에 관한 기록을 수집, 생산 및 서비스하는 기관(김규한, 2022)이자 기록 집합체이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적 관계, 주민의 삶의 흔적을 장기적으로 보존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과 기억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을 제공한다. 지역 아카이브는 중앙 아카이브나 국가 기록관리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미시적 역사,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 주민 주도형 기록을 포괄함으로써, 지역사회 연구·문화연구·도시·농촌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적 토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지역 아카이브 연구는 종종 “특정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고, 구축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지역 아카이브가 기존 아카이브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영역이 연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연구는 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어떤 학문적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어떤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국내 지역 아카이브 연구에서도 참조할 수 있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아카이브를 다룬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①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주제 영역을 통해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확장되고 있는 학문적 경계를 파악하고, ② 논문 제목에 나타나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연구가 집중하는 주제·개념을 도출함으로써,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역사, 문화, 기록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차·융합되고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아카이브를 주제로 한 학술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SCOPUS에서 'local archive'와 'regional archive'가 제목·초록·저자 키워드로 포함된 학술지 논문 621편을 분석하여 지역 아카이브 연구 동향을 살펴 보았다. 분석은 학술지 단위와 논문 단위로 수행되었으며, 학술지 단위 분석에서는 학술지의 주제분류와 제목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집중되는 분야를 파악하고, 논문 단위 분석에서는 논문 제목 키워드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제 간 연관성과 핵심 연구영역을 도출하였다.

2. 선행연구

기록학 전반의 연구 동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술지·학위논문·키

워드 등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영역, 시기별 분포, 저자 및 기관 특성 등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록학 전반에 걸친 연구를 분석한 국내 연구로 남태우와 이진영(2009)은 국내 기록관리학 학술지 4종을 대상으로 10년간 논문의 주제, 간행시기, 저자, 학회지 분포의 변화 추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기록학 연구가 시기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3종 기록 관련 학회지를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대응분석을 수행하여 기록관리학 연구를 13개 주제 영역으로 재구성하고, 각 영역의 비중과 경향을 비교한 연구도 있었는데(김규환, 남영준, 2009)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된 학회지마다 구별되는 특징적인 주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영준은 이를 연계한 후속연구에서도 기록학 분야의 학술지에 실린 연구논문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는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한국기록학회지와 기록학연구의 논문을 통계적인 방법과 네트워크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손혜인, 남영준, 2016).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관과 연구 주제 관계를 파악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여 국내 기록학 연구의 주요 기관과 특화된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최이랑(2015)은 학술지 5종 479편 논문에 대해 키워드 및 소속기관 기반의 내용·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와 핵심 연구기관 중요하게 등장한 주제 키워드는 기록관리, 아키비스트, 전자기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기록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한 연구는 국내에 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자기록 관리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 동향을 파악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으나(Chigariro & Khumalo, 2018) 전반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최근 수행된 기록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한 사례로는 2024년에 Archival Science, Archivaria, Archives and Records, Archives and Manuscripts, American Archivist, African Journal of Library,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Development, Records Management Journal, Restaurator 등과 같은 기록학 분야의 핵심저널 9종을 대상으로 계량정보학적으로 총 3,105편의 영어권 핵심 학술지 논문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Xiaoli & Guixiang, 2024). 이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의 기록학 연구 생산량 추이, 국가별 기여도, 연구 분야 구성, 핵심 연구자와 협력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록학 분야의 지적 구조를 도출해내고자 한 것으로 가장 최근 해외 기록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동향을 연도별, 국가별 생산성으로 분석하였고 연구 분야는 주제 분류 수준에서 동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분야 분석에서는 기록학이 정보학·도서관학 분야와 압도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났으며 디지털 기술, 메타데이터, 전자기록관리, 정보시스템 연구가 기록학의 핵심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경영학, 공공행정, 교육, 사회문제 등과도 연계되어 기록학이 다양한 학제 분야와 교차하는 융합적 학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기록학의 융합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학 이외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아카이브와 관

련된 연구 동향을 파악한 연구에서도 연구논문에서 나타난 저자 키워드 분석 결과, ‘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브’, ‘디지털인문학’, ‘문화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등이 중심 키워드로 나타나 아카이브 연구가 전통적 기록학의 범주를 넘어 디지털 기술, 콘텐츠 생산,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유산 기관과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이호신, 2024). 이 연구에 따르면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에서 아카이브 관련 담론이 크게 두 영역, 즉 문화유산·구술사·예술아카이브 중심 영역과 디지털 기술·데이터 기반 영역으로 분화되어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인문학, 아카이브 아트 등 새로운 학문적·예술적 흐름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시대별 키워드 변화를 통해 아카이브 연구가 단순한 보존·관리의 관점을 넘어서 창작, 담론, 기술적 구축, 지역사회 기록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록관리학 내 특정 연구영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디지털 전환, 웹 아카이빙, 전자기록, 기록정보서비스, 정보공개제도, 구술사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동향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희정(2011)은 웹 아카이빙을 주제로 하는 연구를 대상으로 웹 아카이빙 연구가 2004년 등장해 2009년에 정점을 이루었음을 밝혔다. 연구 주제는 웹 아카이빙·디지털 보존 프로젝트, 아카이빙 툴·방법론, 정책·이론 등으로 구분되며,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이 이 영역의 중심 생산 주체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자기록과 관련된 연구동향 분석으로는 국내 6종 학술지에 실린 전자기록 연구 57편을 8개 주제 영역으로 분류하여 전자기록 연구가 기술·제도·보존·정책 영역 등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있음

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으며(이소연, 2011), 이후 이소연(2013)은 디지털 아카이브 및 보존 관련 논문 115편을 일반연구·정책연구·기술연구·디지털 자원 유형 등 4개 범주로 재구성하여 기술 중심에서 정책·자원관리 중심으로 연구 흐름이 이동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기록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김건 외(2013)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참고서비스, 정보제공, 시스템 활용 등 세부 주제를 주요 연구영역으로 도출한 사례가 있었으며 정보공개 분야에서는 최정민과 김유승(2013)이 1982년부터 2013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9개 주제로 분류해 시대별 정보공개 연구의 변화를 분석한 경우가 있었다. 기록조직 분야에서는 이은주와 노지현(2020)이 150편의 국내 논문을 기반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을 병행하여 기록조직 연구의 지적 맥락과 의미구조를 제시하였다. 기록표준에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최근 20년간 표준관련 연구논문을 분석 결과 2000~2010년까지는 아카이브 설계를 위한 OAIS의 연구, OAIS를 통한 디지털 기록 보존연구 ISO 표준의 분석 연구 등이 주로 진행되었고,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기록경영인증, ISAD(G)의 RiC 전환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수진, 최상희, 2023).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기록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부 영역별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사례가 많았으나 해외 연구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 아카이브에 관련된 해외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기록학과 관련한 세부 주제 영역에서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지역 아카이브 연구 데이터 및 연구방법

3.1 지역 아카이브 연구데이터

지역 아카이브를 주제로 연구된 학술논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2025년 9월 26일을 기준으로 검색일 이전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SCOPUS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역 아카이브 학술 연구를 검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SCOPU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초록(abstract) 및 인용(Citation) 데이터베이스로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 의학, 예술·인문학 등 학제 간 연구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학술주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학술데이터베이스로 인정받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따라서 지역 아카이브가 해외에서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상으로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로 판단되어 연구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데 사용한 검색어는 'local archive'와 'regional archive'이며 검색결과 총 621건의 학술논문이 검색되었다. 검색어 'local archive'와 'regional archive'는 국내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에 지역 아카이브가 제목에 들어가 있는 논문을 검색하여 선정한 키워드이다. 검색식 조건으로 학술지 논문으로 제한하는 'JOURNAL'을 검색결과 필터로 적용하였고 검색범위는 제목, 초록, 저자키워드로 선정하였다.

학술논문이 발표된 연도를 기반으로 논문이 발표된 현황을 살펴보니 <표 1> 지역 아카이브 학술논문 연도별 건수와 같은데 논문 건수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10년대와 2020년대에 폭발적으로 연구논문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 이전에는 논문 수가 4건에 불과하여 연구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한 연구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며 1960-70년대에는 7건, 1980-90년대 13건으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지역 아카이브 학술논문 연도별 건수

| 시대 | 논문건수 |
|-----------|------|
| 1950년대 이전 | 4 |
| 1960-70년대 | 7 |
| 1980-90년대 | 13 |
| 2000년대 | 49 |
| 2010년대 | 227 |
| 2020년대 | 321 |
| 총계 | 621 |

2000년대에 들어서 연구논문 건수가 49건으로 이전 20년간 연구에 비하면 약 3배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 시기가 본격적으로 지역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전체 논문 621건 중 약 88%에 해당하는 548건은 최근 20년 동안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는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부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20년간 지역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발표 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림 1> 2002-2025년간 지역 아카이브 연구논문 출판 현황과 같다. 2000년대 초반에는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았던 연구논문 수가 2009년을 기점으로 주목할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에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 출판 논문 수가 정체되는 시기를 보이다가 다시 2022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논문 수는 1년 차에 해당하지 않아 증가 추세 분석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았지만 학술지와 논문 주제분석에는 적용하였다.

학술지 논문을 발표한 저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수행 기관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대학 소속이 43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아카이브 연구 논문건수



<그림 1> 2002-2025년간 지역 아카이브 연구논문 출판 현황

지역 아카이브라는 주제적 특성에 따라 기록관 소속도 10명이 있었고 관련 기관인 도서관이 7명, 박물관도 6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아카이브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원받은 현황을 분석할 결과 전체 621개 논문 중 <표 2> 총 136개의 논문이 연구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지원해준 기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개별 국가의 기관이 83개(60%)로 가장 많은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를 지원해준 국가기관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각 국가의 연구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 60개로 국가수준의 연구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른 정부부처의 지원을 받은 경우도 2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소속재단이나 유네스코 기구와 같은 국제 연구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도 12건에 해당하였다. 대학에서 연구를 지원받은 경우도 22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 기관에서 연구지원을 받은 경우도 19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연구지원기관 유형 및 개수

| 펀딩 유형 | 논문건수 |
|--------|------|
| 국가연구기관 | 60 |
| 국가기관 | 23 |
| 대학 | 22 |
| 기관 | 19 |
| 국제연구기관 | 12 |
| 총계 | 136 |

3.2 연구방법

수집된 지역 아카이브 학술논문 데이터는 총 2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첫째, 학술지 단위

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학술논문이 실린 주요 학술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학술지명에 나타난 키워드를 추출하여 빈도수가 높은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술지명에서 나타난 주제어를 분석하였다. 또한 SCOPUS에서 학술지에 부여한 주제분류번호를 활용하여 지역 아카이브 학술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의 주제분야를 분석하여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주제 영역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학술논문 단위로 지역 아카이브의 연구 주제를 분석하였는데 학술논문명에 나타난 키워드를 추출하여 빈도가 많은 주제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기법을 적용하여 각 주제어 간의 연관 관계와 주제가 확장되는 상황을 파악하였다. 형태소 분석을 하기 위해 적합한 형태소 분석기는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영어 형태소분석기인 NLTK(Natural Language Toolkit)를 사용하였으며 어간 처리를 위해서는 portstemmer를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WNET 프로그램(이재운, 2006)이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스파인더 네트워크(Pathfinder Network: PFNet)로 주제어 연관관계를 시각화하였다. 네트워크를 세부 주제 영역으로 분할하기 위해 병렬 최근접 이웃 클러스터링(Parallel Nearest Neighbor Clustering: PNNC)을 사용하여 과목별 군집을 도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네트워크 시각화는 NodeXL을 이용하였다. 네트워크의 시각화 과정에서 각 노드의 중요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 값을 각 노드에 적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은 가중 네트워크에서 노드를 매개해주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역 중심성을 평가하

는 지수이다. 또한 세부 주제 영역에서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최근접이웃중심성 지수를 적용하였는데 상대적 최근접이웃중심성 지수는 가중 네트워크에서 지역 중심성을 측정하는데 활용하는 지수이다(이재윤, 2006).

4. 지역 아카이브 학술논문 주제 분석

4.1 학술지 주제분석

지역 아카이브 학술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402종으로 지역 아카이브가 게재된 빈도를 조사하였다. 지역 아카이브 학술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14개의 논문이 실린 Bylye Gody로 학술지의 주제 분야 주로 러시아 제정

시대(1613-1917년) 및 유럽사, 동유럽사 등을 다루는 학술지로 국제적인 학술지라기보다는 주로 러시아사 중심인 국지적인 학술지이다. 또한 두 번째로 게재 논문이 많이 실린 학술지도 Vestnik Volgogradskogo Gosudarstvennogo Universiteta, Serii 4도 러시아의 볼고그라드 대학에서 출간하는 학술지이다. 이 학술지도 지역학과 국제관계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주로 러시아와 동유럽 역사와 국제관계를 다루는 지역적 특색이 강한 국내 학술지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논문 게재 수가 많은 상위 학술지가 러시아의 국내 학술지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아카이브 연구에 러시아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역 아카이브 논문이 5개 이상 게재된 학술지를 조사하였을 때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3〉 지역 아카이브 논문이 게재된 주요

〈표 3〉 지역 아카이브 논문이 게재된 주요 학술지

| 학술지명 | 게재 논문 건 수 |
|---|-----------|
| Bylye Gody | 14 |
| Vestnik Volgogradskogo Gosudarstvennogo Universiteta, Serii 4: Istoriia, Regionovedenie, Mezhdunarodnye Otnosheniia | 13 |
|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 11 |
| Modern History of Russia | 9 |
| Proceedings of SPIE -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 9 |
|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 8 |
| RUDN Journal of Russian History | 8 |
| Voprosy Istorii | 8 |
| American Archivist | 7 |
| Gazette des Archives | 7 |
| Istoriya | 6 |
| Journal on Computing and Cultural Heritage | 6 |
| CEUR Workshop Proceedings | 5 |
| Nauchnyi Dialog | 5 |
| Perm University Herald - History | 5 |

학술지를 살펴보면 지역 아카이브 논문이 5개 이상 연구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12개 중에 러시아와 관련된 학술지가 총 6개로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두 학술지처럼 대학이 출판하고 국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술지들이 있었는데 Modern History of Russia는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에서 출간하는 학술지도 20세기~21세기 러시아의 현대사에 특화되어 있는 학술지이며 RUDN Journal of Russian History도 RUDN대학에서 러시아 역사와 러시아-아내 소수 민족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지역연구 학술지이다. Perm University Herald - History도 러시아 페름대학에서 출간하는 지역연구 학술지이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분야로 출간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는 학술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Voprosy Istorii는 역사 분야에서 소련 시기부터 이어진 학술지로 상대적으로 다른 러시아 학술지보다는 권위가 있는 학술지이다. 이 학술지에는 지역 아카이브 연구논문이 총 8개 실려있었다. 이 밖에도 Istoriya는 러시아연방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 역사학과 인문사회과학 영역에 해당하는 학술지로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것이다. Nauchnyi Dialog도 2012년도에 창간한 러시아 역사와 문학 이론을 다루는 상대적으로 신생 학술지에 속한다.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학술지를 살펴보면 영국의 기록 분야에서 나오는 학술지인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에 8건의 논문이 실렸었고 미국기록협회에서 발간되는 American Archivist,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에 7건이 실려있었다. 또한 프랑스에서 기록 분야로 나오는 학술지인 Gazette des

Archives에도 7건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세 학술지는 러시아의 학술지가 역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비하여 역사보다는 아카이브 기관 현장 실무 및 이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술지로서 지역 아카이브에서 기록관리적 측면의 학술논문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록관리와 역사적 요소가 결합된 학술지도 나타났는데 6개의 논문이 게재된 Journal on Computing and Cultural Heritage는 디지털 아카이브, 문화유산의 정보처리·표현·보존·상호작용 기술 등이 주요 주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역사나 기록관리가 아닌 분야의 학술지로 게재 논문 건수가 5건 이상인 학술지도 광학분야의 Proceedings of SPIE -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와 지리학 분야의 Engineering Geology가 있었는데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니 해당 분야의 역사적 사건과 자료에 관련된 논문이었다. 예를 들어 1755년 리스본 대지진에 관련된 논문으로 지역 아카이브의 자료에 대한 내용인 경우이다. 또한 Journal of Physics와 Lecture note in computer science에 게재된 논문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나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학술지의 주제를 주제 영역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Scopus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주제분류 All Science Journal Classification(이하 ASJC)를 각 학술지에 부여된 주제분류번호와 매칭하였는데 중복된 분류를 포함하여 총 25개의 대주제 분야에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ASJC는 총 27개의 주제분야가 있는데 Dentistry와 Veterinary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학술지에서 지

역 아카이브가 제목과 초록, 저자 키워드에서 나타난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ASJC 기반 학술지 주제분석 - 대주제에서 나타났듯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Social Sciences로, 323건(34.5%)이 사회과학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술논문연구 621건 중 절반 이상이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은 Arts and

Humanities이며, 285건(30.4%)으로 사회과학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특징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두 축을 이루며, 지역 아카이브 게재 학술지가 두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Computer Science 영역은 63건(6.73%), Medicine 48건(5.13%), Earth and Planetary Sciences 47건(5.02%), Environmental Science 32건(3.42%)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자연과학·공학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표 4〉 ASJC 기반 학술지 주제분석 - 대주제

| 대주제명 | 빈도(%) |
|--------------------------------------|------------|
| Social Sciences | 323(34.5%) |
| Arts and Humanities | 285(30.4%) |
| Computer Science | 63(6.73%) |
| Medicine | 48(5.13%) |
| Earth and Planetary Sciences | 47(5.02%) |
| Environmental Science | 32(3.42%) |
| Business | 23(2.45%) |
| Engineering | 22(2.35%) |
|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 18(1.92%) |
| Economics | 10(1.06%) |
| Physics and Astronomy | 9(0.96%) |
| Psychology | 9(0.96%) |
| Biochemistry | 7(0.74%) |
| Mathematics | 6(0.64%) |
| Chemistry | 5(0.53%) |
| Health Professions | 5(0.53%) |
| Multidisciplinary | 5(0.53%) |
| Decision Sciences | 4(0.42%) |
| Materials Science | 4(0.42%) |
| Energy | 3(0.32%) |
| Immunology and Microbiology | 2(0.21%) |
| Pharmacology | 2(0.21%) |
| Chemical Engineering | 1(0.1%) |
| Neuroscience | 1(0.1%) |
| Nursing | 1(0.1%) |
| 총계 | 935 |

로 낮지만, 기술·의학·환경 분야의 학술지에도 지역 아카이브 논문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술지의 대주제 분류번호를 기반으로 분석할 결과 크게 지역 아카이브 논문이 게재되는 학술지의 주제적 특성이 사회과학과 인문학 중심의 학제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과학·의학·기술 분야는 연관된 주변 영역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 주제 분석에서 구체적인 주제 영역으로 주제분석을 심화하기 위하여 ASJC의 세부주제분류번호를 매핑하여 학술지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표 5> ASJC 기반 학술지 주제 분석 - 소주제와 같다. 소주제 분야 분석은 10개 이상의 학술지가 분류된 주제 영역으로 한정하여 시행되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항목은 History(1202)로, 총 150회 등장하여 연구 관심이 역사 분야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역사연구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주제는 Cultural Studies(3316)로 57회이며, 이는 문화 연구가 역사 분야와 연계되거나 독립적인 관심 영역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hropology(3314)가 37회,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3312)가 35회로 나타나, 문화·사회·정치·인류를 아우르는 인문·사회과학적 주제분야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 아카이브가 연구 전반에 걸쳐 인간 사회와 문화의 구조, 상호작용, 정치적 맥락과 연관된 주제로 수행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 5> ASJC 기반 학술지 주제분석 - 소주제

| 주제명 | 빈도 |
|---|-----|
| History(1202) | 150 |
| Cultural Studies(3316) | 57 |
| Anthropology(3314) | 37 |
|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3312) | 35 |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3309) | 34 |
| Geography(3305) | 29 |
| Arts and Humanities (miscellaneous)(1201) | 23 |
| Visual Arts and Performing Arts(1213) | 21 |
| Archeology(3302) | 19 |
|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3320) | 18 |
| Archeology (arts and humanities)(1204) | 17 |
| Education(3304) | 16 |
| Computer Science Applications(1706) | 15 |
| Information Systems(1710) | 14 |
| Literature and Literary Theory(1208) | 14 |
| Language and Linguistics(1203) | 13 |
| Linguistics and Language(3310) | 12 |
| Conservation(1206) | 10 |

네 번째로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 영역은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3309)로 지역 아카이브의 구축이나 서비스, 정보조직 등의 내용이 다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 Geography(3305) 29회, Visual Arts and Performing Arts(1213) 21회, Archeology(3302) 19회, Education(3304) 16회, Computer Science Applications(1706) 15회, Literature and Literary Theory(1208) 14회 등이 중간권을 구성한다. 이는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공간적 분석, 예술 연구, 문학 이론, 교육학, 컴퓨터 응용 등 다양한 분야 간 융합적 접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지역 아카이브 연구의 중점은 인문학·사회과학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지만 정보학, 지리학, 예술, 컴퓨터 과학과 같은 인접 학문 영역으로 확장된 다층적 구조를 지닌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학술지의 세부적인 주제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술지 제목에서 추출된 총 1,528개

의 제목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1,528개의 키워드 가운데 668개 종수의 고유 키워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학술지의 주제 범위가 비교적 넓고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학술지 주요 제목 키워드에 나타났듯이 키워드 빈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로 나타난 키워드는 history(69회)로 지역 아카이브 연구에서 역사 관련 학술지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science(24회)가 뒤를 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European, information(각 12회)로 나타났다. 지역 아카이브 연구에서 유럽 지역 연구와 정보·정보학 관련 학술지도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간 빈도대에서는 social(11회), engineering(9회) 등이 등장하며, 사회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술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또한 archive, archivist, computer(각 8회)는 기록관리학·아카이브 연구와 컴퓨터·정보기술

〈표 6〉 학술지 주요 제목 키워드

| 제목 키워드 | 건수 |
|--|----|
| history | 69 |
| science | 24 |
| European, information | 12 |
| social | 11 |
| engineering | 9 |
| archive(archivist), computer | 8 |
| culture, economics, heritage | 7 |
| African, American, education, knowledge, medicine, remote sensing, system | 6 |
| art, digital, earth, humanity, library, technology | 5 |
| China, data, documentation, frontier, geography, health, Latin, management, music, planetary, Russian, scientific, software, South, university | 4 |
| application, astrophysics, business, communication, development, East, physics, public, record, region, urban | 3 |

기본 학술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회 등장한 키워드는 culture, economics, heritage 등으로 인문학·사회과학 분야의 핵심 테마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외에도 African, American(6회)과 같은 지역적 특성으로 나타내난 키워드가 주요 주제어로 나타났으며 education, knowledge, medicine, remote sensing, system(6회) 분포하여 지역 연구, 교육학, 의학, 원격탐사, 시스템 분석 등 주제가 매우 다각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교적 낮은 빈도(5회)에서는 art, digital, earth, humanity, library, technology 등의 키워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예술, 디지털 기술, 지구과학, 인문성, 도서관학 및 기술 분야가 주요 학술지 영역은 아니지만 관심 영역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4회 등장한 키워드들(예: China, data, geography, health, management, planetary, Russian 등)은 특정 국가·지역 연구와 데이터, 행정·관리, 보건, 행성 연구, 러시아 관련 주제의 존재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3회 등장하는 application, astrophysics, business, communication, development, East, physics, public, record, region, urban 등은 전문적·응용적 영역뿐 아니라 동서 지역 연구, 공공성, 도시 연구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학술지에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학술지 제목 키워드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 아카이브가 실리는 학술지는 역사학을 중심으로 인문학·사회과학·정보학·과학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폭넓은 주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아카이브를 연구

하는 논문을 쓰는 학술지가 단일 학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학제적·융합적 연구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역사·문화·사회·기술·지역연구가 균형 있게 혼재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주제 선택이 다양한 학제적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2 학술논문 주제분석

학술지에 게재되는 지역 아카이브 연구논문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술논문명에 나타난 키워드를 추출하여 불용어를 처리하고 빈도가 많은 주제어를 파악하였다. 추출된 키워드는 총 11,394개 키워드이며 종수는 4,131종에 해당하였다. 이중 빈도수 상위 20개의 제목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가 <표 7> 학술논문 주요 제목 키워드와 같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키워드는 archive(186회)로 나타났다. archive는 region(64)나 local(55)와 같은 키워드와 함께 연구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한 키워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장 빈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빈도는 heritage(78회)이며, 이는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논의가 연구 전반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어 cultural(60회)가 상위권을 이루고 있어, 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간권 키워드로는 history, war(각 35회)가 포함되어 있고 year(21회)도 상당수 출현하여 시대 연구와 전쟁관련 연구, 역사 연구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digital(40회), data(29회)가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것은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디지털 아

〈표 7〉 학술논문 주요 제목 키워드

| 논문 제목 키워드 | 빈도 |
|---|-----|
| archive | 186 |
| heritage | 78 |
| region | 64 |
| culture | 60 |
| local | 55 |
| digital | 40 |
| history, war | 35 |
| south | 32 |
| data, system | 29 |
| Russian | 24 |
| state | 23 |
| document, historical, public | 22 |
| Italy, year | 21 |
| national | 20 |
| service, Soviet | 18 |
| development | 17 |
| activity, community, record, social | 16 |
| city, education, integration, memory, political | 15 |
| industrial | 14 |
| collection, experience, north | 13 |

이브 구축이나 활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에 필요한 지역적 데이터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도 일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system(29회)은 기록관리 시스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유산 관리 체계 구축 등 정보·기술 기반의 연구가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술지 분석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러시아 학술지의 영향으로 Russian(24회), SOVIET(18회)가 출현빈도가 높은 주제어로 나타났으며 러시아 외 국가로는 Italy((21회)가 상위권에 출현하여 주요 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city(15회), south

(14회), north(13회) 등이 있어 특정 도시나 지역과 관련된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카이빙과 관련된 키워드들도 document(22회), record(16회), memory(15회), collection(13회) 등으로 나타나 기록 콜렉션 구축이나 기록 관리, 다큐멘테이션 측면에서 기록 아카이브 연구 주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아카이브 관련 학술논문의 연구 주제 간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논문 제목에서 추출된 모든 주제어 가운데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100개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이 상위 100개를 분석 단위로 삼아, 개별 논문에서 같이 등장하는 키워드 쌍을 기준으로 동시출현 빈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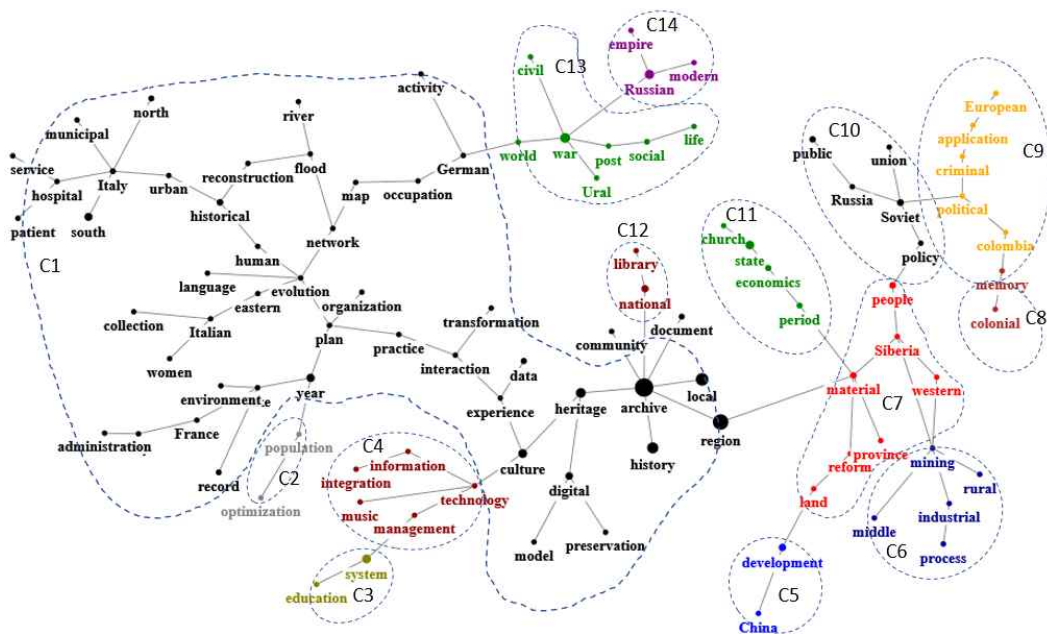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키워드×키워드 동시 출현 행렬을 구축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축된 동시출현 행렬에 동시출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각 주제어가 어떤 다른 주제어와 함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 주제들 사이의 **연관 구조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주제어 간 관계의 핵심 골격만을 추출하기 위해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 아카이브 연구 주제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 확장·연결되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네트워크 구조를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시각화 단계에서는, 각 키워드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연결자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역 중심성 지표인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 지수를 적용

하였다. 이 지수는 특정 주제어가 서로 다른 주제 클러스터들 사이를 매개하며, 새로운 주제 조합과 연구 방향을 만들어 내는 “교차점” 또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지를 보여준다. 시각화 결과에서는 이 값을 노드 크기에 반영하여,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이 높은 주제어일수록 더 크게 표시함으로써, 지역 아카이브 연구에서 주제 확장과 클러스터 간 연결을 주도하는 핵심 주제어를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술논문 제목 키워드를 기반으로 주제 관계를 시각화한 결과 <그림 2> 학술논문 제목 키워드 기반 주제 네트워크에서 나타났듯이 총 14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클러스터가 형성된 형상을 살펴보면 C1이 가장 큰 클러스터로 지역 아카이브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어도 다양



<그림 2> 학술논문 제목 키워드 기반 주제 네트워크

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클러스터이다. 클러스터 1에서는 archive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전역 중심성이 가장 높은 노드로 중앙에 위치하면서 다른 클러스터와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chive 노드는 history와 heritage, culture로 연결되면서 지역 아카이브의 주요 주제어 관계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클러스터 1에서 다른 클러스터와 연결이 되는 역할을 하는 노드 중 주목할 만한 노드들은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13을 연결하는 German 노드로 German 노드는 world와 war 노드로 연결되면서 전쟁이 주요 주제인 클러스터 13과 관련된 주제로 확장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year 노드는 population 노드와 연결되면서 지역 아카이브 연구에서 연도와 인구와 연관되어 주제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 1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 관계는 heritage 노드가 digital로 이어지고 digital 노드는 다시 preservation과 model로 이어지는 관계이다. 이 연관 관계는 지역 아카이브 연구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디지털 보존이 결합되어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클러스터 1의 culture 노드를 역시 클러스터 4의 technology로 연결되고 있어 문화유산 과 지역 아카이브, 디지털 보존이 융합되어 주제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술지나 학술논문에서 출현빈도가 높았던 Russia는 전체 네트워크에서는 지역 아카이브 연구의 보편적인 주제를 표현하는 전역 중심성 보다는 지역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ussia는 SOVIET와 연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두 노드는 policy, union, public 과 같은 키워드와 클러스터 10을 형성하여 지역

아카이브 연구에서 소비에트에서부터 러시아까지 행정, 공공과 관련된 주제로 아카이브 연구가 수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Soviet는 클러스터 9의 노드인 political과 연결되는 관계를 보여주었고 다시 criminal로 주제가 연결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클러스터 9의 Colombia는 클러스터 8의 memory와 colonial 노드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콜롬비아와 관련된 지역 아카이브의 연구 주제가 식민지 기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도 역사적인 주제 키워드들로 형성된 클러스터는 C14로 러시아 제국과 현대 러시아에 관련된 주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록관리에 관련된 주제 클러스터는 C4와 C3에 해당하는데 C4는 technology를 중심으로 information, integration, management와 같이 기록관리 기술과 관리에 대한 키워드가 핵심노드로 나타났다. 클러스터 4의 management 노드는 다시 C3의 system 노드로 연결되어 이 영역이 기록시스템과 관련된 영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클러스터 7은 material이 Siberia, western으로 연결되어 클러스터 6의 mining으로 이어지고 있어 광산산업과 개발에 관련된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 7의 land 노드는 클러스터 5의 development로 연결되어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제도 지역 아카이브 연구 주제로 분석되었다.

5. 결론

이 연구는 지역 아카이브(local/regional archives)

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의 생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연구영역의 주제적 특성을 파악하여 주제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연구 시기별 분석 결과, 지역 아카이브 관련 연구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적 증가세를 보였다. 1950년대 이전에는 단 4편만이 존재하며, 1960-70년대 7편, 1980-90년대 13편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49편으로 증가했고, 이후 2010년대 227편, 2020년대에는 321편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전체 논문 중 88%에 해당하는 548편이 최근 20년 동안 발표되었다는 점은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21세기에 새롭게 구조화된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고 있다.

연구자 소속기관 유형 분석 결과, 대학 소속 연구자가 436명으로 가장 많으며, 기록관(10명), 도서관(7명), 박물관(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실무기관보다는 학술 연구기관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지원기관 분석에서는 전체 621편 중 136편이 외부 지원을 받았으며, 그중 국가 연구기관이 60건(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정부기관(23건), 대학(22건), 일반 기관(19건), 국제기구(EU·UNESCO 등)(12건)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국가적·사회적 지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술지 분석에서는 총 402종의 학술지에 지역 아카이브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재 논문 수가 많은 상위 12개 학술지 중 6종(50%)이 러시아 출판 학술지라는 측면에서 지역 아카이브 연구에서 러시아의 학문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영국·미국·

프랑스의 대표 기록관리 전문 학술지(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American Archivist, Gazette des Archives)에서도 각각 7~8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 기록관리 실무와 결합된 지역 아카이브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 기반 문화유산 연구를 다루는 Journal on Computing and Cultural Heritage 역시 6편이 게재되어 디지털 아카이브·문화유산 정보화 연구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학, 광학, 지질학, 컴퓨터공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재난 기록, 지역 환경 자료 분석,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 학제적 융합 연구의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학술지 주제 영역 분석에서는 지역 아카이브 논문이 ASJC의 25개 대주제 분야에서 등장하였다. 그중 Social Sciences(34.5%)와 Arts & Humanities(30.4%)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인문·사회 중심으로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25개의 다양한 주제 분야의 학술지에 지역 아카이브 연구 논문이 일부라도 게재되고 있는 현상은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학제적으로 연구 주제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주제 분석에서는 History(150회)가 최다 빈도를 기록했으며 Cultural Studies, Anthropology, Sociolog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등이 뒤를 이었다.

학술논문 제목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아카이브 연구 주제 분석에서는 기록 중심 연구와 문화유산·지역성 연구가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아카이브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국가로 나타난 나라는 Russia, Soviet, Italy 등으로 러시아가 지역 아카이브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상위 100개 키워드 간의 관계를 시각화한 결과 총 14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클러스터 1은 archive를 중심으로 history, heritage, culture 등이 결합된 최대 클러스터이며, 지역 아카이브 연구의 핵심 영역을 구성하고 있었다. heritage-digital-preservation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문화유산 보존과 디지털 보존 기술을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러시아 관련 클러스터는 Soviet, policy, union, public 등과 연결되며 국가·정책 기반 아카이브 연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콜롬비아와 colonial, memory로 이어지는 클러스터는 남미 지역의 식민지 기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술·관리 중심 클러스터에서는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등이 연결되며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 아카이브 학술논문의 생산 현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학술지 주제 영역과 논문 제목 키워드를 기반으로 지역 아카이브 연구의 지식 구조를 시각화한 결과, 지역 아카이브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학술적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역사학·문화연구·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지역문화유산, 지역 정책 등으로 주제가 다층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권 연구의 집중도, 문화유산·기억연구와 디지털 보존기술이 결합된 주제의 부상, 그리고 공학·환경과학·정보기술 분야와의 접점 등은 지역 아카이브 연구가 전통적 기록학의 범위를 넘어 학제 간 융합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은 지역 아카이브를 단순한 '지역 자료의 축적소'로 이해하는 기존 관점을 넘어, 디지털 기술, 장소성(place), 기억·정체성, 지역 정책, 과거사 및 식민주의 연구 등 다양한 담론을 연결하는 새로운 융합 연구 영역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즉, 지역 아카이브가 기록학 내부의 하위 주제가 아니라, 역사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지역학, 디지털 인문학을 융합하는 교차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록 분야의 실무적 측면에서도 이 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확인된 'heritage-digital-preservation' 경로는 지역 아카이브 정책이 문화유산 보존과 디지털 전환 전략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술·관리 중심 클러스터는 장기보존, 시스템 설계, 메타데이터 관리 등 기술 기반 역량이 지역 아카이브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이탈리아 등 특정 지역의 정책·사회·역사적 맥락을 반영한 아카이브 연구의 확산은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의 역사와 경험을 스스로 기록하고 해석하는 참여 기반 아카이브 모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 김건, 김수정, 윤은하, 한희정 (2013).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99-229.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99>
- 김규한 (2022). 국내 지역아카이브의 온라인서비스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17-239. <https://doi.org/10.4275/KSLIS.2009.43.4.217>
- 김판준 (2015).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동향 분석과 과제: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1), 265-295. <https://doi.org/10.3743/KOSIM.2015.32.1.265>
- 김희정 (2011).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웹 아카이빙 주제영역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235-248.
-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https://doi.org/10.16981/KLISS.40.2.200906.451>
- 손혜인, 남영준 (2016). 기록관리학 분야 국내 학술지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3(1), 85-110.
- 이소연 (2011).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31.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007>
- 이소연 (2013). 국내 디지털 보존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47-283.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2.247>
- 이은주, 노지현 (2020). 국내 기록조직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129-146.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129>
- 이재영, 정연경 (2018).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 분석: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25-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3.025>
- 이재윤 (2006). 지적 구조의 규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333-355.
- 이호신 (2024). 키워드로 살펴본 국내 학문 분야에서의 아카이브 연구 동향: KCI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8, 113-152.
- 최이랑 (2015).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최근 10년간(2004-2013)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3), 147-177. <https://doi.org/10.20923/KJAS.2015.43.147>
- 최정민, 김유승 (2013).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73-197.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73>

- 허수진, 최상희 (2023). 기록관리표준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40(4), 351-373.
<https://doi.org/10.3743/KOSIM.2023.40.4.351>
- Chigariro, D. & Khumalo, N. B. (2018).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research in ESARBICA: a bibliometric study. *Records Management Journal*, 28(2), 159-174.
<https://doi.org/10.1108/RMJ-12-2016-0045>
- Qi, T., Liu, Z., & Zhou, Y. (2025). Digital Cultural Heritage Archives: Conceptual Analysis and Preliminary Framework Construction. *The International Archives of the Photogrammetry, Remote Sensing and Spatial Information Sciences*, XLVIII-M-9, 1221-1228.
<https://doi.org/10.5194/isprs-archives-XLVIII-M-9-2025-1221-2025>
- Xiaoli L. & Guixiang L. (2024). Bibliometric analysis of archival science: insights and implications. *Procedia Computer Science*, 24, 1446-1452. <https://doi.org/10.1016/j.procs.2024.08.09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Jeong Min & Kim, You-seung (2013).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freedom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173-197.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73>
- Choi, Yilang (201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studies in Korea: focused on research papers between 2004 and 2013.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3), 147-177. <https://doi.org/10.20923/KJAS.2015.43.147>
- Heo, Sujin & Choi, Sanghee (2023). Analysis of Korean research trends on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0(4), 351-373.
<https://doi.org/10.3743/KOSIM.2023.40.4.351>
- Kim, Geon, Kim, Soojung, Youn, Eunha, & Han, Hee-Jung (2013). Research trends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199-229.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99>
- Kim, Gyu Han (2022). A Study on Survey and Improvement of Regional Archive Online Services in Korea. Master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 Kim, Gyu-hwan & Nam, Young-Joon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217-239.
<https://doi.org/10.4275/KSLIS.2009.43.4.217>

- Kim, Hee-Jung (2011). A study on web archiving subject analysis based on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2), 235-248.
- Kim, Pan-jun (2015).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digital curation: focused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1), 265-295. <https://doi.org/10.3743/KOSIM.2015.32.1.265>
- Lee, Eun-Ju & Rho, Jee-Hyun (2020). Research outcomes and limitations of records and archives organiz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4), 129-146.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129>
- Lee, Hosin (2024). A study on archive research trends in domestic academic fields examined by keyword: focusing on articles of KCI academic journal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18, 113-152.
- Lee, Jae-Young & Chung, Yeon-Kyoung (2018). Research trends of oral history in Korea: focusing on domestic academic journal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3), 25-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3.025>
- Lee, Jae-Yun (2006). A study on the network generation methods for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knowledge domai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2), 333-355.
- Lee, So-Yeon (2011). Trends analysis of electronic records and archives research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7-31.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007>
- Lee, So-Yeon (2013). Trends analysis of digital preservation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2), 247-283.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2.247>
- Nam, Tea-Woo & Lee, Jin-Young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51-472. <https://doi.org/10.16981/KLISS.40.2.200906.451>
- Sohn, Hye In & Nam, Young Joon (2016).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focused on th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and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1), 85-110.

